

녹아내리는 지구,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2020년을 만들자!

호주에서 상상도 못할 정도의 넓은 숲이 불타 사라졌다. 자그마치 5개월 동안 꺼지지 않은 산불이다. 지금도 빙하가 녹고 있으며 북극곰의 집이 사라지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최고기온이 23도였으며, 겨울잠에서 일찍 깬 개구리들은 갈 곳을 잃었다. 또한 이상기온으로 인해 고산지대의 나무들이 말라 죽었다. 한국의 사계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심각한 기후위기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결국 인간의 삶까지 영향을 미친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인간 삶의 터전까지 앗아가고 있다. 최근 키리바시섬 토착민이 기후난민이 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기후위기는 인간 삶의 위기로 이어진다.

지금과 같이 미온적이고 안일한 대처가 심각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 비상사태를 불러오고 있다.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2017년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7억톤을 돌파했으며, 탄소배출 세계 7위, 1인당 배출량 세계 2위에 올랐다. ‘세계 기후약당’이란 오명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든다.

호주 산불과 같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을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 할 때가 아니다. 160만 충북도민, 5000만 국민이, 나아가 전 세계가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의 인식변화,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한 정책 변화이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북도민과 함께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첫째,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관련 교육과 강연회 등을 진행할 것이다.
- 둘째, 청주시 건물 옥상에 햇빛발전소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기후위기를 가속시키는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 셋째,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 촉구’ 1인 시위, 기자회견, 캠페인 등을 진행할 것이다.
- 넷째, 기후위기 대응이 이번 4·15 총선의 주요 의제가 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다.
- 다섯째, 대중교통 이용하기, 육류 소비 줄이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 대중들과 함께 일상적인 시민 실천 활동을 펼칠 것이다.

오늘 1800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들이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2020년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해로 만들자!

2020년 2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 일동